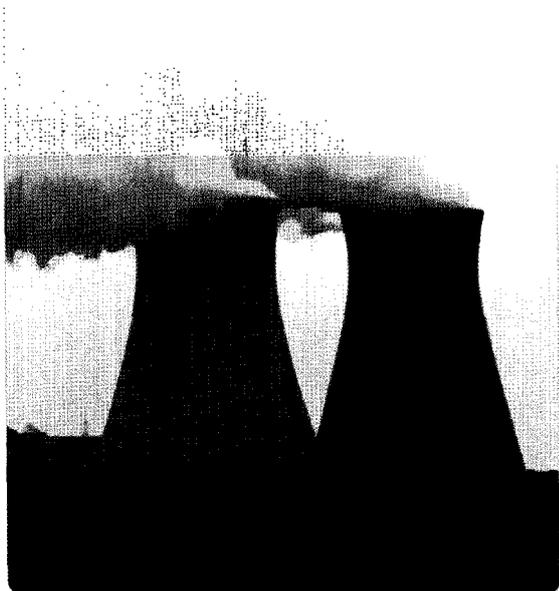


일본 지진과 핵 위기로 전기차 생산 차질

현존하거나 계획 중인 원자력 프로젝트, 취소 혹은 연기 위기



▲ 일본 지진으로 인해 전기자동차 생산이 차질을 빚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원자력에 대한 불신이 상승하면서 재생에너지와 화석연료에 대해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지진과 해일에 이은 핵 위기가 대체연료 자동차에서 재생에너지에 이르기까지 기업환경과 활동에 광범위하게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하이브리드자동차, 프리우스 제조업체인 도요타가 최소한 3월 23일까지 공장을 폐쇄할 것이라 발표하는데 이어 일본 자동차회사들은 잇달아 공장 가동 중단을 발표했다.

자신이 일본을 강타하기 전 닛산은 미국에 하루 평균 600대의 전기차 리프를 수출했다고 <AutoEvolution>이 보고했다. 리프를 제외한 일부 2,300대의 닛산 신차는 미국으로 향하는 배에 선적을 기다리던 중 지진으로 모두 파손되었다.

원자력에 대한 불신으로 화석연료 수요 증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후쿠시마 다이이치 원전 재난 이후에도 원자력발전소를 지지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원자력산업에 대한 확신은 흔들리고 있다. 코이터통신은 NRG Energy의 텍사스 남부, 100억 달러의 원자력발전소 설립 계획은 시행될 수 없을 것 같다는 분석가의 의견을 전했다. Standard and Poor는 현

존하거나 계획 중인 원자력 프로젝트는 일본 지진으로 인해 취소되거나 연기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원자력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은 재생에너지와 화석연료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다고 <BusinessGreen>이 보고했다.

독일 Angela Merkel 수상의 7개 원자로 중단 발표는 유럽 내 화석연료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을 뿐 아니라 거의 2년 만에 최고가로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데 한몫 했다. Orbco의 애널리스트인 Emmanuel Fagès는 <Bloomberg>와의 인터뷰에서 "Merkel의 원자로 폐쇄 결정은 전력시장에서 4.9GW 생산력을 없앤 것이며 공공시설은 석탄, 오일과 가스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7개 원자로의 영구적 폐쇄로 인해 독일은 2020년까지 2억7,000만 톤에 이르는 탄소배출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이는 올해 유럽전체 탄소배출권의 13%에 상응하는 탄소량과 같다고 Fagès는 말했다.